

『기록한다는 것: 오항녕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

이 은 영*

첨단 디지털 기술 문명에 익숙해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기록, 특히 고문헌 기록은 박물관에나 가서야 볼 수 있는 유물의 하나로 인식될 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증거’로서의 기록과 그 기록 속에 깃들여 있는 무수한 시간의 흔적들을 마치 한편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방식으로 서술한 10대들을 위한 인문 교양서가 나왔다.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 03’의 『기록한다는 것: 오항녕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생각한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믿는다는 것, 꿈꾼다는 것, 읽는다는 것...” 등 삶의 변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10대 들을 위하여 언어의 변성기를 경험해볼 것을 권유하면서 펴낸 ‘열린 교실’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자는 “이 시리즈를 통하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여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언어의 대장간, 삶의 대장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다. 즉, 이 시리즈는 “생각한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등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뜻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전문가들에게 해당 분야의 말뜻을 10대 청소년들을 위하여 들려줄 것을 요청한 결과,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시리즈이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 등과 같이 다소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주제들을 10대 청소년들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술 방식과 편집에 상당한 공을 들인 시리즈이다.

더욱이 『기록한다는 것』은 영상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10대들에게 딱딱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기록(문헌)’이라는 매체를 동서양의 다양한 인문학 지식을 배경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나간 흥미로운 책이다. 국가기록원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에 실시하는 ‘기록문화 체험학습’에서 ‘영상으로 들려주는 기록 이야기’와 같이 기록 문화의 역사와 기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10대들을 위한 재미있는 인문학적 교양서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필자에게 “기록학이 무엇이며, 기록이 왜 중요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지인들에게도 한번쯤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은 그런 기초 교양서이기도 하다.

『기록한다는 것』은 ‘떠든 아이 효과를 아나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다’, ‘문자를 사용하지 마라’, ‘역사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다’, ‘자라나는 나, 품격 있는 사회’, ‘10년 뒤, 20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인간이 기록을

하는 이유와 최초의 기록의 유형과 기록 매체의 발전사, 문자 기록의 역설, 기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인 정보공개청구제도 등을 마치 필자의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지게 전개하고 있다.

먼저 ‘떠든 아이 효과를 아나요’에선 우리나라 학교에서만 예전부터 있어왔던 ‘떠든 아이’ 적는 풍습은 매나 꾸중 같은 처벌이 두려워서 라기보다는 인간의 품격을 말과 글로 유지하려는 우리들의 ‘품격 있는 정치’의 하나라며, 우리들은 “잘했든 잘못했든 자신의 행동, 길게는 인생이 어디엔가 기록되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떠든 아이 효과’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움으로써 ‘인간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해왔다는 것을 주장한다. 물론, 이름을 적는 방식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도 거론하면서 ‘떠든 아이 효과’라는 것을 단서로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머리를 열고 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다’는 기록의 본질 즉, ‘사람들의 삶을 차곡차곡 적어서 전달’하는 증거로서의 기록의 본질을 들면서 ‘이야기도 기록이다’, ‘디지털 기록을 믿으세요?’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록의 유형과 오늘날의 주류 기록 형태인 디지털 기록과 고전적인 종이 기록의 본질적 차이 등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절의 마지막 무렵에선 ‘기억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망각과 강화라는 시냅스의 재구성을 통하여 선택되어 진다’는 사실을 통하여 과거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는 “사료(史料)에 적힌 내용 자체도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들 속에서 선택되어 적힌 것”이므로 기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문자를 사용하지 마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을 고대의 갑골문으로부터, 조선 시대의 이미지 기록인 ‘의궤’와 현대의 각종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면서 요즘은 기록한다는 것을 “두드린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기발한 제안도 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은 자식과 손자로 이어지고, 내가 한 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삶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며 다시 ‘떠든 아이 효과’를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남기는 이유,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강조한다. 이절의 주제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에선 노자의 ‘결승문자를 사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복잡한 글자의 사용이 결코 지혜나 발전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서, 문명 자체가 득인 동시에 실이 되는 양면성을 띠고 있으며, 공자와 맹자가 생각했던 경계를 위한 장치로서의 역사와 그것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록과 문자에 대한 노자의 관념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간의 다면성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대칭성의 역사’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떤 획일화된 잣대, 혹은 현재의 기준만으로 역사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므로, 기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인간들 사이에서 무너져 버린 대칭성과 이를 회복할 단서를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록의 가치를 재차 일깨워주고 있다.

다만 이 장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노자의 사상을 통하여 문명의 양면성을 전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제목을 장 전체의 제목으로 뽑음으로써 이 책의 전반적인 기초와는 부조화함과 동시에 10대들이 이 장 전체의 주제를 충분히 납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구성을 시도하지 않았나 하고 짐작해본다.

‘역사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다’는 본격적으로 각종 역사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역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역사란 무엇인지’, ‘역사의 효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수정실록과 개수실록의 존재를 예로 들면서 우리 조상의 균형 잡힌 역사관, 즉,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을 남겨서 후대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도 대등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말하는 자세, 나아가 후대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에 대하여 존경을 표한다. 이 장의 마지막에선 미국 동력자원부의 ‘방사능 폐기물 매립지역에 대한 정보를 1만년 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줄 것인가’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기록과 언어를 통한 이러한 고민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음을 던지며 다음 장으로의 긴장을 지속시킨다.

‘자라나는 나, 품격 있는 사회’라는 장에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빛나는 기록문화 전통이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끊어지고 침탈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훼손되고 침탈된 기록문화가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뒤틀리고 가치 있는 기록들이 어떻게 은닉되고 파손되었는지를 ‘1988년의 광주 학살진상규명청문회’를 통해 고발하면서 기록 관리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아울러 저자는 “기록과 사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정보공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보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간단한 절차와 생활 속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할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기록을 남기

기 위하여 기록의 가치를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검증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10대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10년 뒤, 20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에서는 “사람들의 삶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며, 그것을 역사는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고, 알려준다”며 ‘기록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록을 통한 역사이야기’의 정수에 해당하는 구절을 통하여 기록의 본질과 가치와 효용까지 기록에 관한 응축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구절을 다시한번 인용하면서 저자에게 전적인 동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 서평의 말미로 삼으려 한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흐르는 길,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리듬이 곧 역사이며, 그것은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잘못된 일을 성찰하게 하여 삶을 깊이 있게 해주고, 잘한 일은 흐뭇하게 떠올리게 하여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